

제주도 지명 연구(1)

—「朝鮮地誌資料」(1910년경)의 '濟州郡 中面' 지명을 중심으로—

오 창 명*

차 례

1. 서론
2. 「朝鮮地誌資料」(1910년경)와
'濟州郡 中面'의 지명
3. 濟州郡 中面の 지명 해독
4. 결론

1. 서론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초반에 토지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지명을 조사하여 기록한 「朝鮮地誌資料」(1910년경)의 제주 지명을 언어학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이 자료에는 당시 우리나라의 지명을 '地名'이라는 항목으로 분류하여 한자 또는 한자차용표기로 표기하고, 극히 일부 지명에 한하여 '諺文'이라 하는 항목으로 분류하여 한글로 표기하고, '備考'라는 항목으로 분류하여 각 지명의 소속 마을을 일일이 표기하여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1910년경 제주 지명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것이다.

이 자료는 일찍부터 알려졌지만 제주 지명을 연구할 때 이용하지 않은

* 제주대학교 국어상담소

것으로 보인다. 필자도 몇 년 전에야 이 자료를 접하여, 지명 목록을 정리하고 각 지명이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지 조사하느라 몇 년을 그냥 보냈다. 그러다가 2006년 제주 마을 이름과 오름 이름을 정리한 책을 내고 추자면 지명을 정리할 때 이 자료의 제주 지명을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이 연구도 그러한 소개의 일환인데, 지면과 분량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연구 대상을 1910년경 당시 '제주군 중면'의 지명으로 한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한자 또는 한자차용표기로 표기한 지명을 해독하고, 민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음성형과 대조하여 해당 지명의 본디 음성형을 재구한 뒤, 재구한 음성형의 뜻은 무엇인가를 살폈다. 지명 음성형 대부분은 찾을 수 있었지만 그 음성형에 대응하는 뜻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것이 많다. 많은 지명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채 이 연구를 내놓는 것은 잘못된 음성형이 계속 전하는 것은 물론 잘못 전하는 음성형을 바탕으로 하여 전혀 엉뚱한 뜻을 가져다 붙이고 해석 또는 설명하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것은 연구를 더하여 보충하려고 한다.

2. 『朝鮮地誌資料』(1910년경)와 '濟州郡 中面'의 지명

『朝鮮地誌資料』(1910년경)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번호: 古2703'으로 보관되어 있는 책으로, 모두 54책으로 되어 있다. 이 자료에 대한 서지사항과 편찬과정은 임용기(1996:143-158)¹⁾에서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이 자료의 최종본은 1919년에 활자본인 양장본으로 발간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임시로 "양장본 『조선지리지자료』(1919)" 또는 "활자본 『조선지리지자료』(1919)"라 하고 있다.²⁾ 이 양장본은 1989년에 경인문화사에서 『한국지리

1) 임용기(1996), "《조선지리지자료》와 부평의 지명", 『畿甸文化研究』~24권 1호, pp.141-210, 인천교육대학 기전문화연구소.

2) 이 글에서는 '『朝鮮地誌資料』(1910년경)'과 '『朝鮮地誌資料』(1919)'라 하여 필사본과 활자본을 구분하겠다.

풍속지총서』의 ‘권4’로 영인·간행하였다. 이 양장본의 저본이 되었던 “필사본 『조선지리지자료』”는 연구자에 따라 ‘1908년, 1910년경, 1911년, 1912년’ 정도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도서 목록에서는 ‘刊寫年 未詳’이라 하고, 임용기(1996)는 1910년경에 간사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자료는 『朝鮮地誌資料』(1919)의 ‘凡例’에 제시한 것과 같이 日帝의 조선 토지 조사 사업과 관련한 것이다. 1918년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를 보면, 明治 43년(1910)부터 大正 7년(1918)까지 토지 조사 사업을 벌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1910년부터 토지 조사 사업과 더불어 지명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주 지명의 경우, ‘道頭里’가 1914년 3월 1일부터 ‘道頭里’와 ‘梨湖里’로 분리하였는데, 이 자료에서는 ‘梨湖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적어도 1914년 이전에 조사하여 기록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조선지리지자료』는 54책이 남아 있다. 이 54책 중 17책에서 23책이 전라남도의 것이다. 17책에서 23책은 다시 ‘전라남도1-1, 1-2, 1-3, 2-1, 2-2, 3-1, 3-2’와 같이 구분하였는데, 제주 지명은 ‘17책(전라남도1-1)’에 기재하였다. 당시 행정구역 구분에 따라, ‘제주군, 대정군, 정의군’ 등으로 나누고, 지지(地誌)의 ‘종별(種別)’을 山名 또는 山谷名, 野坪名, 浦口名, 站名, 川溪名 또는 川名, 市場名, 酒幕名, 池名, 古碑名, 城堡名 또는 關防名, 峙名 또는 峴名, 湫名, 古蹟名所名, 土産名 등으로 나누어 지명을 기재하였다. 이 중에 土産名만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朝鮮地誌資料』(1910년경)의 ‘濟州郡 中面’의 지명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山名(22): 漢拏山, 兄弟峰(奉蓋里), 七峰(奉蓋里), 赤峰(奉蓋里), 元堂峰(三陽里), 別刀峰(禾之里), 紗羅峰(健入里), 斗內峰(月坪里), 小山峰(我羅里), 三陽峰(我羅里), 梧鳳岳(으드승으름(梧登里), 燕卵岳(吾羅里), 戊岳(기으름(吾羅里),³⁾ 狗離峰(吾羅里), 啄木鳥峰(蓬洞里), 念通岳(蓬洞里), 肝列峰(蓬洞

3) 이 목록에서 『朝鮮地誌資料』의 지명을 ‘山名: 梧鳳岳·으드승으름(梧登里), 戊岳·

里), 雙輿峰(蓬洞里), 琴岳(蓬洞里), 獐岳(蓬洞里), 傑氏岳(蓬洞里), 御乘峰(海安里)

山谷名(7): 明岳(海安里), 臥牛岳(海安里), 烏頭峰(道頭里), 宗洲谷(梧登里), 宗南谷(蓬洞里), 猪水谷(蓬洞里), 龍藏谷(都坪里)

野坪名(21): 三所場(月坪里), 四所場(吾羅里), 九重坪(一徒里), 光陽坪(二徒里), 西紗羅坪(三都里), 靜野坪(龍潭里), 訥於坪(健入里), 金安坪(禾士里), 黃坨坪(禾北寧坪里), 後野坪(三陽里), 達造坪(道連里), 巖洞坪(龍崗里), 聖化坪(我羅里), 梧登坪(梧登里), 先達坪(吾羅里), 訪仙坪(吾羅里), 廣坪(老衙里), 瓦坪(都坪里), 蟹眼坪(海安里), 拜漢坪(外都里), 玄沙坪(道頭里)

浦口名(11): 甘水浦(三陽里), 禾北浦(禾北里), 坤乙浦(禾北里), 山底浦(健入里), 鬪浪浦(三都里), 漢頭浦(龍潭里), 修近浦(龍潭里), 遠長浦(道頭里), 曲浦(道頭里), 屹浦(道頭里), 大浦(道頭外都里)

站名(1): 五里程(龍潭里)

川溪名(11): 三水川(道連三陽里), 別刀川(禾北里), 防川(一徒二徒里), 瀛邱川(梧登里), 兵門川(道頭龍潭三都), 漢川(吾羅龍潭里), 遠長川(老衙都坪內都里), 都近川(海安都坪內都里), 將軍川(都坪里), 無數川(海南都坪外都里), 屹川(道頭里)

市場名(2): 邑內場(三都里), 攀石場(三陽里)

酒幕名(2): 攀石洞酒幕(三陽里), 都近川酒幕(內都里)

池名(10): 如雲池(奉蓋里), 尋芳泉(道南里), 官廳池(三都里), 友蓬池(三都里), 錦山泉(健入里), 龍淵(龍潭里), 飛龍池(龍潭里), 月埜沼(外都里), 德池(道頭里), 御乘項泉(海安里)

古碑名(2): 三姓穴碑(二徒里), 三矢射碑(禾北里)

城堡名(3): 郡城(一徒二都三都里), 間城(二都二徒里), 鎮城(禾北里)

이상과 같이 당시 ‘제주군 중면’의 지명은 ‘山名과 山谷名, 野坪名, 浦口名, 站名, 川溪名, 市場名, 酒幕名, 池名, 古碑名, 城堡名’ 등 11개 종별로

기으름(吾羅里) 등과 같이 표기하였다. ‘山名’과 ‘山谷名’ 따위는 지명의 ‘種別’을 나타낸 것이고, ‘梧鳳岳’과 ‘戊岳’은 한자차용표기로 쓴 ‘地名’을 나타낸 것이다. ‘으드승으름’과 ‘기으름’은 우리말 고유 지명으로서 당시 ‘諺文’으로 쓴 지명을 나타낸 것이고, ‘梧登里’와 ‘吾羅里’는 당시 지명이 속한 마을 이름을 나타낸 것이다.

나누어 91개 지명을 기재하였다. 여기에는 마을 이름을 제외하였다. 종별을 구분할 때, ‘山名’과 ‘山谷名’의 경우는 ‘山名’과 ‘谷名’으로 구분하여 할 듯한데, 그렇지 않았다.

3. 濟州郡 中面の 지명 해독

1910년경 제주도는 전라남도에 속하여 ‘濟州郡, 大靜郡, 旌義郡’ 등 3개 군으로 나뉘어 있었다. 당시 ‘濟州郡’은 ‘中面, 新右面, 舊右面, 新左面, 舊左面’ 등 5개 면으로 나뉘고, ‘中面’은 24개 행정리로 나뉘어 있었다.

위 ‘濟州郡 中面’의 지명 목록을 바탕으로 하여 해독하고, 그에 대응하는 고유어 지명과 현 지명의 음성형을 대조하여 원래 음성형을 재구하고 그 뜻은 무엇인지 살피도록 한다.

3.1 里名

마을 이름은 『朝鮮地誌資料』(1910년경)의 지명 ‘種別’에는 들어 있지 않으나, 이 자료의 ‘備考’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존재하였던 24개 마을 중 ‘回泉里’를 제외한 23개 마을 이름이 나온다.

一徒里, 二徒里, 三都里, 龍潭里, 道連里, 梧登里, 道南里, 吾羅里, 蓬洞里, 老衡里, 我羅里, 月坪里, 道頭里, 海安里, 都坪里, 內都里, 龍崗里, 外都里, 健入里, 禾北里·禾之里·禾土里, 三陽里, 寧坪里, 奉蓋里

하나 특이한 것은 ‘禾北里’에 대응하는 마을 이름이 ‘禾北里·禾之里·禾土里’ 등 3개로 쓰였다는 것이다. ‘別刀峰’은 ‘禾之里’에 있다고 하고, ‘金安坪’은 ‘禾土里’에 있다고 하고, ‘禾北浦’와 ‘坤乙浦’, ‘別刀川’, ‘三矢射碑’, ‘黃蛇坪’ 등은 ‘禾北里’에 있다고 하였다. ‘禾之里’와 ‘禾土里’를 ‘禾北里’의 오기로 보기에는 글씨가 너무 바르게 씌어 있다. 그렇더라도 이 당시에

화북리가 3개의 마을로 나뉘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金安坪’은 화북2동 ‘거로마을’ 남서쪽에 있는 ‘짐안이뱅딤[지마니뱅딤]·지망디’에 대응하는 차자표기이다.

3.2 山名

山名은 대개 ‘○○山’ 또는 ‘○○岳’, ‘○○峰’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岳’과 ‘峰’은 대개 ‘○○오름’으로 해독할 수 있다. ‘山’은 ‘한락산[한락산]·한로산[할로산]’을 제외하면 대개 ‘피’의 변음 ‘메·미·모’ 등의 혼독자 표기로 나타난다. ‘峰’으로 표기한 일부 오름은 조선시대에 봉수를 설치하여 ‘○○峰’이라 하던 것을 봉수를 폐지하면서 ‘○○峰’으로 표기한 것도 있다.

3.2.1 漢拏山

‘漢拏山’은 제주도의 鎮山으로, 예로부터 ‘漢拏者 雲漢可拏引也’라는 데서 붙었다고 한다. 민간의 고로들은 ‘한락산[할락산], 한로산[할로산]’ 등으로 실현하고, 젊은 층에서는 ‘한라산[할라산]’으로 실현한다.

3.2.2 兄弟峰(奉蓋里)

‘兄弟峰’은 ‘성제오름·성제봉’의 차자표기로, 지금 봉개동 명도암에 있는 ‘명도암오름’을 이른다. ‘성제’는 ‘형제’의 제주어로, ‘성제’와 같이 서 있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2005년에 간행한 지형도에는 ‘안세미오름’과 ‘밧세미오름’으로 표기하였으나, 이는 각기 ‘맹도암오름’과 ‘조리세미오름’을 잘못 표기한 것이다.

3.2.3 七峰(奉蓋里)

‘七峰’은 ‘칠오름’의 차자표기로, 지금 봉개동 명도암에 있는 오름을 이른다. ‘칠’은 ‘침[葛]’의 변음으로, ‘칠’이 많이 나는 오름이라는 데서 붙인 것이다. 오늘날 지도에는 ‘칠오름’으로 표기하였다.

3.24 赤峰(奉蓋里)

‘赤峰’은 ‘붉은오름’의 차자표기로, 지금 봉개동에 있는 오름을 이른다. ‘붉은’은 화산 송이로 이루어져서 유난히 붉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봉아름’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지형도에는 ‘붉은오름’으로 표기하였다. 지금 대기고등학교가 들어선 오름으로, 오름 중턱이 많이 깎이고 개밭되어서 오름으로 인식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3.25 元堂峰(三陽里)

‘元堂峰’은 ‘웬당오름’의 차자표기로, 지금 삼양동에 있는 오름을 이른다. 예로부터 ‘웬당>원당’으로 불렸는데, 이 오름 굽부리 일대에 있었던 ‘웬당>원당(元堂)’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원’나라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않는다. 오늘날 지도에는 ‘원당봉’으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元堂峰’에서 ‘元堂峰’으로 바뀐 음성형을 반영한 것이다.

3.26 別刀峰(禾之里)

‘別刀峰’은 ‘벨도오름·벨도봉’의 차자표기로, 지금 화북1동 바닷가에 있는 오름을 이른다. ‘別刀[벨도>별도]’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벨도’라는 음성형이 변하여 ‘베리’로도 실현된다.

3.27 紗羅峰(健入里)

‘紗羅峰’은 ‘사라오름·사라봉’의 차자표기로, 지금 건입동 바닷가에 있는 오름을 이른다. ‘사라봉’이라는 음성형은 ‘紗羅峰’이 ‘紗羅峰’으로 변하여 굳어진 것이다.

3.28 斗內峰(月坪里)

‘斗內峰’은 ‘둘레오름’의 차자표기로, 지금 월평동에 있는 오름을 이른다. 이 오름은 예로부터 ‘둘레오름’으로 불렸는데, 2005년 간행한 지형도에는 ‘둘레오름’으로 표기하였다. ‘둘레오름’은 ‘둘러진’ 오름이라는 데서 붙인 것으로 추정한다.

3.2.8 小山峰(我羅里)

‘小山峰’은 “**솻온오름>소산오름**”의 차자표기로, 지금 아라1동 산천단에 있는 오름을 이른다. ‘소산’은 ‘**솻온>솻은**’[出]의 변음으로 추정한다. 오늘날 지형도에도 ‘小山峰’으로 표기하였다.

3.2.9 三陽峰(我羅里)

‘三陽峰’은 ‘**세미양오름·시미양오름**’의 차자표기로, 지금 아라1동 산간에 있는 오름을 이른다. 2005년 간행한 지형도에는 ‘세미양오름’으로 표기하였다.

3.2.10 梧鳳岳·오드승으름(梧登里)

‘梧鳳岳’은 ‘**오드승이오름·오드성이오름·오드성오름**’의 차자표기인 ‘**뜸등生岳**’을 19세기 후반에 풍수지리설을 기대어 새로 만든 이름이다. 특히 당시 諺文으로 표기한 ‘**오드승으름**’은 ‘**오드성오름**’의 변음임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3.2.11 燕卵岳(吾羅里)

‘燕卵岳’은 ‘**연란지오름·열란지오름**’의 차자표기로, 지금 오라동 산간에 있는 오름을 이른다. 2005년 간행한 지형도에는 ‘**열안지오름**’으로 표기하였다. 사람에게 따라 ‘**열안지[여란지]**’ 또는 ‘**연안지[여난지]**’ 등으로 부르는데,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3.2.12 戌岳·기으름(吾羅里)

‘戌岳’은 ‘**개오름**’의 차자표기로, 諺文으로 표기한 ‘**기으름**’(이는 ‘**기오름**’의 변음이다.)에 대응하는 것이다. 지금 오라동에 있는 ‘**민오름>민오름**’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 오름은 예로부터 ‘**뵤오름>민오름**’으로 부르고, 禿岳[민오름]·小禿岳[죽은민오름] 또는 民岳·敏岳[민오름]으로 표기하였다. 지금도 ‘**민오름>민오름**’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지형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 풍수지리설에 따라 이 오름 아래쪽에 있는 ‘가삿기 오름’과 대비하여 어미 개[戌·犬] 형세라는 데서 ‘개오름’이라 부르고 이에 따라 ‘戌岳’으로까지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1:50,000 지형도에는 ‘피오름’의 음성형을 반영하여 ‘米岳’으로 표기하였다.

3.2.13 狗難峰(吾羅里)

‘狗難峰’은 ‘가삿기오름’의 차자표기로, 오라동에 있는 오름을 이른다. 오늘날 지형도에도 ‘가삿기오름’으로 표기하였다. ‘가삿기’는 ‘개 새끼’의 옛 말로, ‘강아지’에 대응하는 ‘강생이’와는 다른 구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3.2.14 啄木鳥峰(蓮洞里)

‘啄木鳥峰’은 예로부터 ‘남젓은오름’ 또는 ‘남짓은오름’이라 부르는데, 풍수지리설에 따라 ‘새가 나무를 쪼는 형’이라는 데서 ‘啄木鳥峰’으로까지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연동에 있는 오름으로, 일제강점기 1:50,000 지형도에는 ‘木密岳[남젓은오름·남짓은오름]’으로 표기하였다. ‘남젓은·남짓은’을 ‘木密(나무가 우거진)’로 이해하느냐 ‘木啄(나무를 쪼는)’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표기가 달라진 것인데, 후자가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 지형도에는 한때 ‘남젓은오름’의 다른 차자표기인 ‘南朝峰(남조봉)’으로 표기하다가 2005년 간행한 지형도에서부터 ‘남젓은오름’으로 표기하고 있다.

‘啄木鳥峰’의 ‘啄木’은 ‘남젓은(나무를 쪼는)’의 한자어 구성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에 ‘鳥’와 ‘峰’이 덧붙은 것인데, 표기 그대로 읽으면 “남젓은 새오름·*남젓은생이오름”이 될 것이다. 이것은 구절로 바꾸면 ‘생이가 남젓은 오름(새가 나무를 쪼는 오름)’ 정도가 될 텐데,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남젓은새오름·*남젓은생이오름(나무를 쪼는 새오름)”으로도 부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啄木鳥峰’은 특이한 표기라 할 수 있다.

3.2.15 念通岳(蓮洞里)

‘念通岳’는 ‘염통매’ 또는 ‘염통오름’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오름을 이른다. ‘남짓은오름’ 바로 서남쪽에 이웃한 오름이다. 풍수지리설에 따라 ‘염통’에 해당한다는 데서 ‘염통매’ 또는 ‘염통오름’이라 하였다고 하나, 그 이전에는 ‘靈通岳[영통오름]’으로 표기하였기 때문에 ‘염통오름’은 본래 이름에서 변한 음성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지형도에는 ‘광이오름’으로 표기하였다.

3.2.16 肝列峰(蓮洞里)

‘肝列峰’은 ‘간열오름’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오름을 이른다. ‘남짓은오름’에 이웃해 있다. ‘염통오름’에 이웃한 오름을 이른다. 본래 ‘염통오름’에 속한 것인데, 나뉘어 불렸다. 풍수지리상 ‘간’과 같은 형세라는 데서 ‘간열오름’이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 중기부터 ‘光列岳·廣列岳[광렬오름]’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간열오름’은 ‘광렬오름’으로 변하고, 이 소리가 변한 것을 반영한 것이 오늘날 지도에 표기한 ‘광이오름’으로 보인다.

3.2.17 雙輿峰(蓮洞里)

‘雙輿峰’은 ‘상여오름’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오름을 이른다. ‘남짓은오름’ 서남쪽에 이웃해 있다. 이 오름의 형세가 ‘상여’와 같다는 데서 붙었다고 한다. 그러나 ‘尙惠岳[상혜오름]’으로도 표기하였으므로, 근대 국어의 ‘상여>상여(喪輿)’와도 음성형이 다르다. 오늘날 지도에도 ‘상여오름’으로 표기하였다.

3.2.18 琴岳(蓮洞里)

‘琴岳’은 ‘검은오름’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검은오름’을 이른다. 이 오름은 예로부터 ‘금을오름’ 또는 ‘검은오름’이라 부르고 ‘今勿岳’ 또는 ‘巨門岳·巨文岳’으로 표기하였는데, 조선 후기부터 일부 문헌에 ‘琴

岳'으로 표기하였다. '琴岳'이라 표기한 것은 '금을오름' 또는 '검은오름'의 '금을·검은'을 '거문고>거문고(검+은+고)'로 인식하여 인위적으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 오늘날 지형도에는 '거문오름'으로 표기하다가 '검은오름'으로 표기하고 있다.

3.2.19 獐岳(蓮洞里)

'獐岳'은 '노리오름'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노리손이오름'을 이른다. 이 오름은 예로부터 '노리손이오름'이라 하고 '獐孫岳'으로 표기하였는데, 일부 지도에 '손이'를 반영하지 않고 '獐岳'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지형도에는 '노루생이'라 표기하다가 '노루손이오름'으로 표기하고 있다.

3.2.20 傑氏岳(蓮洞里)

'傑氏岳'은 '걸씨오름'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오름을 이른다. 이 오름은 예로부터 '걸씨오름'이라 하여 '傑始岳·傑時岳' 등으로 표기하였는데, '걸씨오름'은 '걸쇄오름[걸췌오름]'의 변음을 반영한 것이다. '걸씨'는 '걸+시'의 구성으로, 근대국어의 '걸쇄·걸쇠', 현대국어의 '걸쇠'에 대응하는 것이다.

3.2.21 御乘峰(海安里)

'御乘峰'은 '어스성이오름'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오름을 이른다. 이 오름은 예로부터 '어스성이오름'이라 부르고 '御乘生岳'으로 표기하였는데, 生을 생략하여 '御乘岳' 또는 生을 생략하고 岳을 峰으로 표기하여 '御乘峰'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지형도에는 '御乘生'으로 표기하였다.

3.2.22 明岳(海安里)

'明岳'은 '붉은오름'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오름을 이른다. 이 오름은 예로부터 '붉은오름'이라 부르고 '赤岳' 또는 '明岳'으로 표기하였는데, 오늘날 지형도에는 '밝은오름'으로 잘못 표기하였다. 화산송이로

이루어져서 유난히 ‘붉다’·붉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이 오름 일대는 해안공동묘지로 조성되어 있어서 지금은 오름으로 인식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3.2.23 臥牛岳(海安里)

‘臥牛岳’은 ‘누운오름’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오름을 이른다. 이 오름은 일찍부터 ‘누운오름’ 또는 ‘눈오름’이라 하여 ‘臥岳’이라 표기하였는데, 일부에서 ‘臥乎岳[누운오름], 臥牛岳[누운오름]’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므로 ‘臥牛岳’을 ‘쇄(소)가 누운 것 같은 오름이라 해독하여서는 안 된다. 오늘날 지형도에는 ‘눈오름’으로 표기하였다.

3.2.24 鳥頭峰(道頭里)

‘鳥頭峰’은 ‘道頭峰’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도두1동에 있는 오름은 예로부터 ‘도도리오름·도돌오름’이라 부르고 ‘道道里岳’ 또는 ‘道道岳’, ‘道圓岳’ 등으로 표기하다가, ‘도도리’가 ‘도두리’로 소리가 바뀌면서 이를 반영한 ‘道頭峰’으로 표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鳥頭峰’의 ‘鳥’는 ‘道’의 잘못으로 보인다.

3.3 谷名

谷名은 대개 ‘○○谷’으로 표기하였는데, ‘谷’은 제주어로 ‘골’ 또는 ‘굴’로 실현된다. 특히 ‘굴’로 실현되는 경우, ‘골’의 변음으로 나타나므로 ‘窟(窟)’로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 ‘골’은 상황에 따라 ‘골짜기’를 뜻하기도 하고 ‘구렁’을 뜻하기도 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3.1 宗洲谷(梧登里)

‘宗洲谷’은 ‘종주골·종주굴’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오등동 ‘들레오름(망체오름)’ 북쪽에 있는 구렁을 이른다. 지금 민간에서는 ‘장자굴’로 실현되기도 한다. ‘종주’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3.3.2 宗南谷(蓮洞里)

‘宗南谷’은 ‘종남골·종남굴’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연동 ‘광이오름(광열오름)’ 위쪽에 있는 구렁을 이른다. 민간에서는 ‘종내미’로도 실현된다. ‘종남’은 상황에 따라 ‘때죽나무’의 제주어로 쓰이기도 하고, 농작물을 간 밭임을 표기하기 위해 밭에 꽃아 두는 장대를 이르기도 한다. 곧 ‘종남이 많은 구렁’ 또는 ‘종남을 꽃았던 구렁’이라는 데서 붙인 것이다.

3.3.3 猪水谷(蓮洞里)

‘猪水谷’은 ‘돛물골·돛물굴’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구렁을 이른다. ‘산툃(산돼지)’이 먹었던 물이라는 데서 붙였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3.3.4 龍藏谷(都坪里)

‘龍藏谷’은 ‘용장골·용장굴’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도평동에 있는 구렁을 이른다. 조선시대에 과원이 있었는데, 그 과원을 ‘龍洞果園, 龍坐洞園, 龍牆果園’ 등으로 표기하였다. 이로 보아, 원래 ‘용촛골’ 또는 ‘용장골[용장골]’ 등으로 부른 것으로 보인다. ‘용좌’ 또는 ‘용장’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3.4 野坪名

野坪名의 경우, ‘○○場’, ‘○○坪’으로 표기하였다. ‘場’은 목장(牧場)을 나타낸 것이고, ‘坪’은 상황에 따라 ‘드르>들’ 또는 ‘벵디·벵디’의 훈독자로 쓰였다. ‘편평하고 넓게 트인 땅’을 ‘드르’라 하였는데, ‘사방으로 펼쳐진 넓고 평평한 땅’을 ‘벵디’라 하였다. ‘드르’와 ‘벵디’의 구분은 확실하지 않다. 한편 ‘野坪’을 ‘드르’ 또는 ‘벵디’의 표기로 쓴 경우도 있다.

3.4.1 三所場(月坪里)

‘三所場’은 ‘삼소 목장’의 뜻으로, 조선 후기에 제주도 중산간 목장을 10개로 나누었을 때의 제주목 삼소에 있는 목장이란 뜻으로 쓴 것이다. 지금 제주시 월평동 중산간 일대에 있었던 목장을 이른다.

3.4.2 四所場(吾羅里)

‘四所場’은 ‘사소 목장’의 뜻이다. 지금 제주시 오라동 중산간 일대에 있었던 목장을 이른다.

3.4.3 九重坪(一徒里)

‘九重坪’은 ‘구중벵디’의 차자표기로, 지금 제주시 일도2동에 있었던 ‘벵디’를 이른다. 지금은 ‘구중동네’와 ‘구중길, 구중새길’ 등의 동네 이름과 도로 이름으로 남아 전하는데, ‘구중’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3.4.4 光陽坪(二徒里)

‘光陽坪’은 ‘광양드르’ 또는 ‘광양벵디’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이도동에 있었다. 민간에서는 예로부터 ‘廣壤(광양)’으로 표기하였는데, 일제강점기부터 ‘光陽(광양)’으로 표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금은 ‘동광양(>동과양), 서광양(>서과양), ‘광양사거리’, ‘동광로, 서광로’ 등으로 이름이 남아 있다.

3.4.5 西紗羅坪(三都里)

‘西紗羅坪’은 ‘서사라벵디’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삼도동에 있었다. 민간에서는 보통 ‘서사라’로 남아 전한다. ‘사라’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西(서)’가 방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東紗羅’도 있을 법하나 민간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건입동 ‘사라봉’ 아래쪽을 ‘사랏드르’라 하는데, 이를 ‘동사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4.6 靜野坪(龍潭里)

‘靜野坪’은 ‘정드르[정뜨르]’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용담동에 있었다. 민간에서는 보통 ‘정드르[정뜨르]’로 남아 전하는데, ‘靜野’ 또는 ‘靜坪’ 등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보아 ‘靜野坪’은 ‘靜’에 野坪을 덧붙인 표기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長野’로 표기하였다.

3.4.7 訥於坪(健入里)

‘訥於坪’은 ‘눌어리벵디[누리리벵디]’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건입동과 화북동 경계에 있었다. 민간에서는 ‘누리리’로 실현되었다. ‘누리리’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3.4.8 金安坪(禾土里)

‘金安坪’은 ‘짐안이벵디’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화북2동 ‘거로마을’ 남서쪽에 있다. 민간에서는 ‘짐안이벵디[지마니벵디]·지망디’로 실현된다. 민간에서는 김 씨와 안 씨가 갈아먹던 벵디라 한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당시 ‘禾土里’에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의 화북2동에 해당한다.

3.4.9 黃蛇坪(禾北·寧坪里)

‘黃蛇坪’은 예로부터 ‘황새왓’으로 불렸는데, ‘黃蛇坪’으로 표기하고 뱀이 누워있는 형국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에서 ‘황새왓’이라는 음성형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黃蛇坪’의 ‘黃蛇’는 ‘황새’의 유사음 ‘황사’의 음가자결합 표기로 보인다.

3.4.10 後野坪(三陽里)

‘後野坪’은 ‘뒷벵디’의 차자표기로, ‘後[뒤]’에 ‘野坪’을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삼양2동의 ‘벵디’(삼양초등학교 남쪽)에서 뒤쪽 벵디를 이른 것으로 보인다.

3.4.11 達造坪(道連里)

‘達造坪’은 ‘달조벵디’의 표기인지 확실하지 않다. 민간에서 이에 대응하는 음성형을 확인하기 어렵다.

3.4.12 巖洞坪(龍崗里)

‘巖洞坪’은 ‘엄동굴’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용강동에 있는 구렁을 이른다.

민간에서는 ‘암동굴’로 실현되지 않고 ‘엄동굴’로 실현되므로, ‘巖’은 ‘암’의 음가자 표기가 아니라, 이의 유사음 ‘엄’의 음가자 표기로 쓰인 것이다.

3.4.13 聖化坪(我羅里)

‘聖化坪’은 ‘성화벵디’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벵디를 이른다. ‘성화’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3.4.14 梧登坪(梧登里)

‘梧登坪’은 ‘오드성이벵디’의 차자표기이다. ‘오드성이’의 뜻은 확실하지 않으나, 차자표기로 ‘吾等生’으로 표기하다가, 조선 말부터 ‘梧登’으로 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梧登坪’으로 표기한 것이다.

3.4.15 先達坪(吾羅里)

‘先達坪’은 ‘선달벵디’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오라2동에 있는 벵디를 이른다. 민간에서는 ‘선달팽이’로도 실현된다. ‘先達’은 ‘설달(先達: 문무과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하지 아니한 사람. 조선 중기 이후에는 주로 무과에 급제하고 벼슬을 받지 못한 사람만을 가리켰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4.16 訪仙坪(吾羅里)

‘訪仙坪’은 ‘방선루벵디’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오라동과 연동에 걸쳐 있다. 민간에서는 주로 ‘방선루(訪仙樓)’라 하고 있다.

3.4.17 廣坪(老衡里)

‘廣坪’은 ‘넙은드르’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던 들을 이른다. 지금도 ‘넙은드르’라 하지만 한자차용표기인 ‘廣坪’이 일반화한 듯하다.

3.4.18 瓦坪(都坪里)

‘瓦坪’은 ‘왓벵디’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도평리에 있던 벵디를 이른다.

‘기와’를 구웠던 벙디라는 데서 예로부터 ‘왓벙디’라 불렀는데, ‘와(瓦)+ㅅ+벙디’ 구성이 변한 것으로 보인다.

3.4.19 蟹眼坪(海安里)

‘蟹眼坪’은 ‘해안이벙디·해안벙디’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해안동에 있던 벙디를 이른다. ‘해안’의 뜻은 확실하지 않으나, 민간에서는 ‘蟹眼’의 표기를 중시하여 ‘계 눈’과 같은 형세라는 데서 붙었다고 한다.

3.4.20 拜漢坪(外都里)

‘拜漢坪’은 ‘배한이드르’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외도동에 있던 ‘드르’를 이른다. 민간에서는 주로 ‘배한이’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3.4.21 玄沙坪(道頭里)

‘玄沙坪’은 ‘감은모살벙디’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벙디를 이른다. 지금 이호1동 玄沙洞에 있다. 당시 이호리는 도두리에 포함되어 있었다.

3.5 浦口名

浦口名은 대개 ‘○○浦’로 표기하였는데, 이것은 ‘○○개’를 표기한 것이다.

3.5.1 甘水浦(三陽里)

‘甘水浦’는 ‘가물개’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삼양2동의 한 포구를 이른다. 예로부터 ‘가물개’(이는 ‘감은모살개’의 줄임말이다.)라 하여 ‘可沙浦’로 표기하였으나, 일제강점기부터 ‘甘水浦’로 표기하고, 이 포구 일대의 동네를 ‘甘水洞’이라 하여 전하고 있다.

3.5.2 禾北浦(禾北里)

‘禾北浦’는 예로부터 ‘벨돛개’라 하여 ‘別刀浦’ 또는 ‘別梁浦’, ‘星梁浦’로

표기하다가 17세기부터 ‘禾北浦’로 표기하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禾北浦’도 ‘벨뚝개’의 유사음 ‘벳뚝개’ 정도의 음성형을 표기한 것이다. 유사한 음성형의 이표기라 할 수 있다.

3.5.3 坤乙浦(禾北里)

‘坤乙浦’는 ‘곤을개[고늘개]’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화북1동의 한 포구를 이른다. 예로부터 ‘고늘개’라 하여 ‘古老浦’로 표기하였는데, 일제강점기부터 ‘坤乙浦’라 표기하면서, 그 일대에 형성된 마을도 ‘坤乙洞’이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3.5.4 山底浦(健入里)

‘山底浦’는 ‘산젓개’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건입동에 있었던 포구를 이른다. 지금은 제주항으로 개발하였다. 예로부터 ‘건들개’ 또는 ‘산젓개’라 불렀다. ‘산젓개’는 소리가 변하여 ‘산짓개’라고도 하였는데, 오늘날은 소리가 ‘산지’로 변하여 ‘산지, 산지등대, 산짓내, 산지천’ 등으로 남아있다.

3.5.5 鬪浪浦(三都里)

‘鬪浪浦’는 ‘머렁개’ 또는 ‘부러릿개’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삼도리에 있었던 포구를 이른다. 민간에서 ‘머렁’ 또는 ‘부러리’로 소리가 변하여 남아 있는데, 예로부터 ‘伐郎浦·伐浪浦’ 등으로 표기하였다. ‘鬪浪浦’로 표기한 것이 특이하다.

3.5.6 漢頭浦(龍潭里)

‘漢頭浦’는 ‘한두깃개’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용담리에 있는 포구를 이른다. 민간에서는 ‘한독깃개’라 하여 ‘大獨浦·大瀆浦·大瓮浦[한독깃개]’ 등으로 표기하였는데, 음성형 ‘한도기’가 ‘한두기’로 변하면서 이것을 반영하여 ‘漢頭浦’로까지 표기한 것이다. 지금도 ‘동한두기·동한데기, 서한두기·서한데기’ 등으로 음성형이 남아 전한다.

3.5.7 修近浦(龍潭里)

‘修近浦’는 ‘닷근내>닷그내’의 차자표기로, 용담2동 수근동에 있는 포구를 이른다. 포구를 이루기 어려운 곳인데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개를 만들었다는 데서 ‘닷그내’라 하고 한자차용표기로 ‘修近浦’라 하였다고 한다.

3.5.8 遠長浦(道頭里)

‘遠長浦’는 ‘원장개’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이호동과 내도동 경계를 흐르는 ‘원장내’ 하류에 형성되었던 개를 이른다. 일제강점기 중반에 큰 태풍이 불어 파손되어 없어졌다. 나중에 이 ‘원장개’ 서쪽에 새로 개를 만들어 ‘동개(東-)’라 불렀는데, 이 ‘동개’를 ‘玄沙浦[감은모살개]’라고도 한다.

3.5.9 曲浦(道頭里)

‘曲浦’는 ‘굽은개’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도두동 포구에 있었던 개를 이르는데 지금은 메워졌다.

3.5.10 屹浦(道頭里)

‘屹浦’는 ‘홀개’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도두2동 신사수동 포구를 이른다. ‘홀개’는 예로부터 ‘홀개’라 부르고 ‘泥乙浦·泥浦[홀개]’로 표기하였는데, 이 당시부터 ‘屹浦’로 표기하였다.

3.5.11 大浦(道頭·外都里)

‘大浦’는 ‘한개’의 차자표기로, 지금 외도동과 내도동 경계에 있는 포구를 이른다. 이 일대는 예로부터 ‘도근넛개’라 하여 ‘都近川浦’ 또는 ‘都近浦’로 표기하였는데, 이 당시에 ‘한개’라 하여 ‘大浦’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3.6 站名

站은 館이라고도 하는데, 조선 시대에, 관원이 공무로 다닐 때에 숙식을 제공하고 빈객(賓客)을 접대하기 위하여 일정 거리에 둔 객사(客舍)를 이른다.

3.6.1 五里程(龍潭里)

‘五里程’은 ‘오리정’의 표기로 보인다. 민간에서 그에 대응하는 음성형을 확인하기 어렵다.

3.7 川溪名

川溪名은 대개 ‘○○川’으로 표기하였는데, 모두 ‘○○내’의 차자표기로 쓰였다.

3.7.1 三水川(道連·三陽里)

‘三水川’은 ‘삼숫내’ 또는 ‘삼수선내’의 차자표기로, 도련동을 거쳐 삼양동으로 흘러가는 내를 이른다. 오늘날 지형도에도 ‘삼수천’으로 표기하였다.

3.7.2 別刀川(禾北里)

‘別刀川’은 ‘벨돛내’의 차자표기로, 예로부터 ‘別刀川’으로 표기하였다. ‘禾北’으로 이름을 바꾼 뒤에는 ‘禾北川’이라고도 하였다. 오늘날 지형도에도 ‘禾北川’으로 표기하였다.

3.7.3 防川(一徒·二徒里)

‘防川’은 ‘막은내’의 차자표기로, ‘산짓내’의 중류를 이르는 내 이름이다.

3.7.4 瀛邱川(梧登里)

‘瀛邱川’은 ‘영긋내’의 차자표기인데, ‘瀛邱’는 ‘들렁케’(민간에서는 주로 ‘들렁귀’라 한다.)의 한자표기 중 하나인 ‘登瀛邱’의 줄임말로 보인다. 지금의 ‘한내’ 상류로, ‘들렁케’ 일대의 내를 이른다.

3.7.5 兵門川(道頭·龍潭·三都)

‘兵門川’은 ‘벙문내’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도남동을 흘러서 삼도리를 거쳐 용담동으로 흘러가는 내를 이른다. 자료에서 ‘兵門川’이 ‘道頭·龍潭·

三'라 한 것 중 '道頭'는 '道南'의 잘못이다. 오늘날 지형도에는 '屏門川'으로 표기하였다.

3.7.6 漢川(吾羅·龍潭里)

'漢川'은 '한내'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오라동을 거쳐 용담리로 흘러가는 내를 이른다. 예전에는 '한내'라 하여 '大川[한내]'으로 표기하였는데, 이 당시부터 '漢川[한내]'으로 표기하면서 한자음을 따라 '한천'으로 굳어지고 있다.

3.7.7 遠長川(老衡·都坪·內都里)

'遠長川'은 '원장내'의 차자표기로, 노형동을 거쳐 도평동과 내도동·이호동 경계를 지나 바다로 흘러가는 내를 이른다.

3.7.8 都近川(海安·都坪·內都里)

'都近川'은 '도근내>도그내'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해안동에서 흘러내려 도평동과 내도리를 거쳐 흐르는 내를 이른다. 지금 지형도에도 '都近川'으로 표기하고 있다.

3.7.9 將軍川(都坪里)

'將軍川'은 '장군내'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도평동을 흘러 '도근내'로 합류하는 내를 이른다. '도근천'과 '광령천' 사이를 흐르는 내이다. 민간에서도 '장군내'라 한다. 하류는 '어시내'라고도 한다.

3.7.10 無數川(海南·都坪·外都里)

'無數川'은 '무수내'의 차자표기로, 해안리 남쪽에서 발원하여 도평리를 거쳐 외도리로 흘러가는 내를 이른다. 근래에는 '無愁川[무수천]'으로 표기하는데, 2005년 발간한 지형도에는 '광령천'으로 표기하였다.

3.7.11 屹川(道頭里)

'屹川'은 '흘내'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도두2동 바닷가로 흘러가는 내를 이른다. 예로부터 '흘내'라 하여 '泥乙川[흘내]' 또는 '泥川[흘내]'으로 표기하였는데, 이 당시부터 '屹川[흘내]'으로도 표기하였다.

3.8 市場名

18세기 후반의 『증보 탐라지』(風俗)에 “장시가 없다(無場市)”고 하였는데, 일제강점기 초반에는 ‘市場’이 있었다.

3.8.1 邑內場(三都里)

‘邑內場’은 제주성 안에 있는 시장을 이르는데, 제주성 안은 예로부터 ‘성안[城內]’으로 불렀는데, ‘邑內場’이라 한 것이 특이하다.

3.8.2 擧石場(三陽里)

‘擧石場’은 ‘들은돌 장’의 표기이다. ‘擧石’은 제주시 삼양2동에 있었던 고인들을 이르고, 이 고인들을 제주어로 ‘들은돌’이라 하고 ‘擧石’으로 표기하였다. 이 ‘들은돌’ 일대에 형성된 마을을 ‘擧石洞’이라 하고, 이 동네에 형성되었던 장을 ‘擧石場’이라 한 것이다.

3.9 酒幕名

酒幕은 시골 길가에서 밥과 술을 팔고, 돈을 받고 나그네를 묵게 하는 집을 이른다.

3.9.1 擧石洞酒幕(三陽里)

‘擧石洞酒幕’은 ‘들은돌’에 있었던 주막을 이른다. 제주시 삼양2동의 ‘들은돌동네’를 예로부터 ‘擧石洞’으로 표기하였다.

3.9.2 都近川酒幕(內都里)

‘都近川酒幕’은 ‘도근내>도그내’에 있었던 주막을 이른다. ‘都近川’은 ‘도근내>도그내’의 차차표기로, 지금 외도동과 내도동 경계를 흐르는 내 하류 일대를 이른다.

3.10 池名

池名은 주로 ‘○○池’, ‘○○泉’, ‘○○淵’, ‘○○沼’ 등으로 표기하였다.

‘池’는 ‘못’ 또는 ‘물’의 훈독자 표기로 쓰이고, ‘泉’은 ‘물’ 또는 ‘샘’의 제주어 ‘세미’의 훈독자 표기로 쓰였다. ‘淵’과 ‘沼’는 ‘연’의 음독자 또는 ‘소’의 음독자 표기로 쓰였다.

3.10.1 如雲池(奉蓋里)

‘如雲池’는 ‘여웃못[여운못]’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봉개동에 있었던 못을 이른다. ‘여우[狐]’와 관련 있는 못인지 ‘연못’의 변음인지 확실하지 않다.

3.10.2 尋芳泉(道南里)

‘尋芳泉’은 ‘심방세미’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도남동에 있었던 샘을 이른다. ‘尋芳’은 ‘심방’의 음가자 결합표기이고, ‘泉’은 ‘세미’의 훈독자 표기이다. ‘심방’은 ‘무당’을 이르는 제주어이고, ‘세미’는 ‘샘’의 제주어이다. ‘심방’과 관련이 있는 샘으로 보인다.

3.10.3 官廳池(三都里)

‘官廳池’는 ‘관청못’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삼도동에 있었다. ‘관청’에서 관리하던 못이라는 데서 붙인 것이다. 제주의료원 자리인 ‘향청골’에 있었던 ‘향청못(상청못)’을 이른 것으로 보인다.

3.10.4 友蓮池(三都里)

‘友蓮池’는 ‘우련못’의 차자표기로, 제주목 관아지 안 ‘友蓮堂’ 앞에 있었던 못을 이른다. 일제강점기부터 메워졌다가 제주목 관아지를 복원하면서 못도 복원하여 놓았다.

3.10.5 錦山泉(健入里)

‘錦山泉’은 ‘금산물’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건입동 금산수원지 안에 있는 물을 이른다. 지금도 ‘금산물’이라 부른다. 이 물 주변은 수원지로 조성하였다.

3.10.6 龍淵(龍潭里)

‘龍淵’은 ‘용연’의 표기인데, 원래 “용소” 정도로 불렀던 것을 ‘龍淵’으로 표기하면서 ‘용연’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용담1동과 용담2동 경계인 바닷가에 있는 소를 이른다. 용연 구름다리 위쪽 소를 이른다.

3.10.7 飛龍池(龍潭里)

‘飛龍池’는 ‘비룡못’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용담1동의 서문시장 입구 북쪽에 있었던 못을 이른다. 예로부터 ‘비룡못’이라 하고 ‘飛龍池’로 표기하였다고 한다. 이 일대에 명당이 있었는데 땅을 잘못 파서 용이 날아가 버린 곳이라는 전설이 전하는 곳이다.

3.10.8 月埜沼(外都里)

‘月埜沼’는 ‘월대소’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외도동과 내도동 경계인 ‘도근내>도그내’ 하류에 있는 소를 이른다. 오늘날 지형도의 ‘외도천’(위쪽은 ‘무수천’이라고도 하는데, 오늘날 지형도에는 ‘광령천’으로 표기하였다.) 하류에 있다.

3.10.9 德池(道頭里)

‘德池’는 ‘덕물·덕지물’의 차자표기로, 오늘날은 주로 ‘덕지물’이라 한다. 제주시 이호2동 ‘덕지논’에 있는 물을 이른다. 조선 후기에는 ‘德泉[덕물·덕지물]’으로 표기하였는데, 근래에는 ‘德池水[덕지물]’로 표기하고 있다.

3.10.10 御乘項泉(海安里)

‘御乘項泉’은 ‘어스렁이목세미’의 차자표기로, ‘어승생 수원지’의 원천을 이른다. 요즘은 ‘어리목물’이라고 한다.

3.11 古碑名

古碑는 예로부터 전해온 비를 이른다.

3.11.1 三姓穴碑(二徒里)

‘三姓穴碑’는 ‘삼성혈 비’를 표기한 것으로, 지금 삼성혈 바로 앞에 세운 비를 이른다. 중종 21년(1526)에 목사 이수동이 처음 제단을 마련하고 비를 세웠다고 하나, 원 비는 없어졌다. 숙종 35년(1709)에 ‘三姓碑’를 세웠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비석의 앞면에는 ‘三姓穴’이라 하고 뒷면에는 ‘崇禎後四丙辰夏 改堅’이라 한 것으로 보아 1856년에 다시 세운 것임을 알 수 있다.

3.11.2 三矢射碑(禾北里)

‘三矢射碑’는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비를 이른다. 세 화살을 쏜 자국이 있는 돌을 보관하고 있다. 이 비는 영조 때 김정 목사가 처음 세워 ‘三矢射碑’라 하였는데, 1930년인 경오년에 고쳐 세우면서 ‘三射石碑’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3.12 城堡名

城堡는 城과 堡의 합성어이다. 堡는 적을 막으려고 성 밖에 임시로 만든 소규모의 요새를 이르는 말이다.

3.12.1 郡城(一徒·二都·三都里)

‘郡城’은 濟州牧 城을 이르는데, 이 당시에 濟州牧을 濟州郡이라 하였기 때문에 ‘濟州郡 城’의 준말로 ‘郡城’이라 한 것이다.

3.12.2 間城(二都·二徒里)

‘間城’은 ‘셋성’의 표기이다. 큰 비가 오면 산짓내(산지천) 하류가 범람하여 민가에 피해를 많이 끼쳤기 때문에 정조 4년(1780)에 金永綏 목사가 산짓내 하류 서쪽 바위에 ‘間城’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을 이른 것이다. 지금 오현단 남쪽에 격대 3곳과 일부 성벽이 남아 있다.

3.12.3 鎭城(禾北里)

‘鎭城’은 禾北鎭 城을 이른다. 禾北鎭 城을 줄여서 ‘鎭城’이라 한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1910년경 日帝가 토지 조사 사업을 벌이면서 조사한 지명 자료집인 『朝鮮地誌資料』에 보이는 ‘濟州郡 中面’의 지명 목록을 작성하고, 한자로 표기하거나 한자차용표기로 표기한 지명을 해독하고, 한글로 쓰거나 해독한 음성형의 뜻을 밝혔다. 일부 지명의 경우, 음성형을 추정하거나 재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나, 일부 지명은 그 뜻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경우는 억지로 해석하지 않고 점차 밝힐 과제로 남겼다.

『朝鮮地誌資料』의 존재는 일찍부터 알려졌으나, 이제까지 제주 지명을 연구하는 데 본격적으로 이용한 것은 필자의 글(2006, 2007)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지면의 한정으로 당시 ‘濟州郡 中面’의 지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이 자료는 기존 지명자료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없는 ‘한글’ 자료가 몇 개 눈에 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시 오등동에 있는 ‘梧鳳岳’은 ‘오드승으름’이라 한 것,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戊岳’을 ‘기으름’이라 한 것 등이 그것이다. ‘오드승으름’은 ‘오드성오름>오드성오름’의 변음을 표기한 것이고, ‘기으름’은 ‘믹오름·뽕오름’의 차자표기인 ‘戊岳’을 ‘戊岳’으로 인식하여 ‘기으름>개오름’이라 한 것의 변음이다. 전자는 예로부터 ‘오드성오름’이라 하여 ‘뽕等生岳>뽕等岳’으로 표기하다가 19세기 후반에 풍수지리설을 받아들여 ‘梧鳳岳’이라 표기한 것이다. 그러나 고유어로는 ‘오드승으름’이라 하였다는 것을 보면 본디 음성형인 ‘오드성오름’을 추정하기에 어려움이 없다. 후자는 근래에도 ‘뽕오름>민오름’이라 하여 하여 ‘民岳·敏岳·文岳’으로 표기하는 것을 고려하면, ‘戊岳/기으름’은 이 오름 아래쪽에 있는 ‘가삿기오름’과 대비시킨 풍수지리설을 받아들여, 어미 개 형세라는 데서 불

인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 외의 대부분 지명은 당시 고유어로 부르는 지명을 한자차용표기를 반영하여 표기하였다. 특히 못 이름 중에 ‘官廳池(三都里)’와 ‘友蓮池(三都里)’는 일제강점기에 메워버린 못이지만 본디 이름을 찾았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 ‘官廳池’는 ‘관청못’의 차자표기로, 제주시 삼도동에 있었다. ‘관청’에서 관리하던 못이라는 데서 붙인 것이다. 제주의료원 자리인 ‘향청골’에 있었던 ‘향청못(상청못)’을 이른 것으로 보인다. ‘友蓮池’는 ‘우련못’의 한자차용표기로, 제주목 관아지 안 ‘友蓮堂’ 앞에 있었던 못을 이른다. 일제강점기부터 메워졌다가 제주목 관아지를 복원하면서 못도 복원하여 놓았다.

오름 이름 중 제주시 연동에 있는 ‘남짓은오름·남젯은오름’은 ‘啄木鳥峰’으로 표기한 것이 특이하다. ‘啄木鳥峰’의 ‘啄木’은 ‘남젯은(나무를 쫓는)’의 한자어 구성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에 ‘鳥’와 ‘峰’이 덧붙은 것인데, 표기 그대로 읽으면 ‘남젯은새오름·*남젯은생이오름’이 될 것이다. 이것은 구절로 바꾸면 ‘생이가 남젯은 오름’ 정도가 될텐데,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남젯은새오름·*남젯은생이오름”으로도 부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啄木鳥峰’은 특이한 표기라 할 수 있다.

도두동에 있는 ‘도도리오름>도두리오름’의 경우 ‘鳥頭峰’으로 표기하였는데, 이것은 ‘鳥頭峰’의 잘못으로 보인다.

본론에서 논의한 제주군 중면의 지명을 재구 음성형을 대비시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山名(22): 漢孝山/한리산, 兄弟峰(奉蓋里)/성제오름, 七峰(奉蓋里)/칠오름, 赤峰(奉蓋里)/붉은오름, 元堂峰(三陽里)/원당오름, 別刀峰(禾之里)/별도오름, 紗羅峰(健入里)/사리오름, 斗內峰(月坪里)/둘너오름, 小山峰(我羅里)/숫안오름, 三陽峰(我羅里)/세미양오름, 梧鳳岳(으드승오름/梧登里)/으드승오름, 燕卵岳(吾羅里)/연란시오름, 戊岳(기오름/吾羅里)/개오름, 狗難峰(吾羅里)/가삿기오름, 啄木鳥峰(蓬洞里)/남젯은오름, 念通岳(蓬洞里)/염통오름, 肝列峰(蓬洞里)/간열오름, 雙興峰(蓬洞里)/쌍여오름, 琴岳(蓬洞里)/금글오름/금오름, 獐岳(蓬洞里)/노리오름/노로오름, 傑氏岳(蓬洞里)/걸시오름/걸쇠오름,

御乘峰(海安里)/어스싱이

山谷名(7): 明岳(海安里)/붉은오름, 臥牛岳(海安里)/누운오름, 鳥頭峰(道頭里)/
도두리오름, 宗洲谷(梧登里)/종주굴, 宗南谷(蓬洞里)/종남굴, 猪水谷(蓬洞
里)/뚫물굴, 龍藏谷(都坪里)/용장굴

野坪名(21): 三所場(月坪里)/삼소장, 四所場(吾羅里)/사소장, 九重坪(一徒里)/
구중벵디, 光陽坪(二徒里)/광양벵디, 西紗羅坪(三都里)/서사라벵디, 靜野坪
(龍潭里)/정드르, 訥於坪(健入里)/늘어벵디, 金安坪(禾士里)/짐안이벵디, 黃
蛇坪(禾北寧坪里)/황사평, 後野坪(三陽里)/뒤드르, 達造坪(道連里)/달조벵
디, 巖洞坪(龍崗里)/엄동굴벵디, 聖化坪(我羅里)/성화벵디, 梧登坪(梧登里)/
오드싱이벵디, 先達坪(吾羅里)/선달벵디, 訪仙坪(吾羅里)/방선이, 廣坪(老
衙里)/넓은드르, 瓦坪(都坪里)/왓벵디, 蟹眼坪(海安里)/헤안벵디, 拜漢坪(外
都里)/배한이드르, 玄沙坪(道頭里)/감은모살벵디

浦口名(11): 甘水浦(三陽里)/가물개, 禾北浦(禾北里)/벳트개, 坤乙浦(禾北里)/
곤을개, 山底浦(健入里)/산저개, 翻浪浦(三都里)/버렁개, 漢頭浦(龍潭里)/한
두깃개, 修近浦(龍潭里)/뎃그내, 遠長浦(道頭里)/원장개, 曲浦(道頭里)/굽은
개, 屹浦(道頭里)/흘개, 大浦(道頭外都里)/한개

站名(1): 五里程(龍潭里)/오리정

川溪名(11): 三水川(道連三陽里)/삼수섯내, 別刀川(禾北里)/벨뎃내, 防川(一
徒二徒里)/막은내, 瀛邱川(梧登里)/영긔내, 兵門川(道頭龍潭三都)/벵문내,
漢川(吾羅龍潭里)/한내, 遠長川(老衙都坪內都里)/원장내, 都近川(海安都
坪內都里)/도근내, 將軍川(都坪里)/장군내, 無數川(海南都坪外都里)/무숫
내, 屹川(道頭里)/흘내

市場名(2): 邑內場(三都里)/읍내장, 攀石場(三陽里)/뜰은뜰장

酒幕名(2): 攀石洞酒幕(三陽里)/뜰은뜰주막, 都近川酒幕(內都里)/도근내주막

池名(10): 如雲池(奉蓋里)/어웃못, 尋芳泉(道南里)/심방세미, 官廳池(三都里)/
관청못, 友蓬池(三都里)/우런못, 錦山泉(健入里)/금산물, 龍淵(龍潭里)/용
소, 飛龍池(龍潭里)/비룡못, 月埜沼(外都里)/월대소, 德池(道頭里)/덕물덕
지물, 御乘項泉(海安里)/어스싱이목물. 어리목물

古碑名(2): 三姓穴碑(二徒里)/삼성혈비, 三矢射碑(禾北里)/삼사사비

城堡名(3): 郡城(一徒二都三都里)/군성, 間城(二都二徒里)/간성, 鎮城(禾北
里)/진성

- 핵심어: 제주도, 지명, 제주군, 중면, 조선지리지자료, 차자표기

<참고문헌>

刊寫者 未詳(刊寫年 未詳), 『朝鮮地誌資料』.

臨時土地調査局(1919), 『朝鮮地誌資料』.

오창명(1998),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출판부.

오창명(2006), 『추자면(楸子面)과 지명』, 『영주어문』 12집, 영주어문학회.

오창명(2007), 『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 제주대학교출판부.

오창명(2007), 『제주도 오름 이름의 종합적 연구』, 제주대학교출판부.

임용기(1996), “《조선지리지자료》와 부평의 지명”, 『畿甸文化研究』 24권
1호, 인천교육대학 기전문학연구소.

朝鮮總督府 臨時調査局(1918),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 1, 2.

<Abstract>

Study of the Jeju-do place name (1)

- the place name of JeJuGun JungMyeon(濟州郡 中面)
used for JoSeonJijiJaryo(『朝鮮地誌資料』: about 1910) to the center -

Oh Chang-myeong

This study is for readings and interpretation to have done the place name of 'JeJuGun JungMyeon(濟州郡 中面)' looking in the JoSeonJijiJaryo(『朝鮮地誌資料』) which is the place name source book which collected while Japanese imperialism begins the Land Survey in about 1910.

First of all, readings did the place name that I recorded a place name list of 'JeJuGun JungMyeon(濟州郡 中面)' in writing and a Chinese character at that time or showed as borrowed characters. Next, I spent it for Korean or lighted up a meaning of read a phonetic shape. Presumption did a phonetic shape, or in case of some place name, it was not that reconstructions was hard in order to do it, but what was hard in order to light up he meaning was. In this case, I left it with an assignment I did not do interpretation, and to say gradually compulsorily.

The existence of JoSeonJijiJaryo(『朝鮮地誌資料』) was known early. However, I did not use it really in order until now to study the Jeju place name. There is a sentence of merely the present writer (2006, 2007). I studied the place name of 'JeJuGun JungMyeon(濟州郡 中面)' with the object with a just 1 of the ground in this study at that time.

- **Keywords:** Jeju-do(濟州道), **place name**, JeJuGun(濟州郡), JungMyeon(中面), JoSeonJijiJaryo(『朝鮮地誌資料』), borrowed characters